

미래를 여는 도서관, 가고 싶은 도서관

창원도서관 종합문예지

해돋이

2018년 제31집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창원도서관 종합문예지

해돋이

2018년 제31집

2018년 제31집

해돋이

창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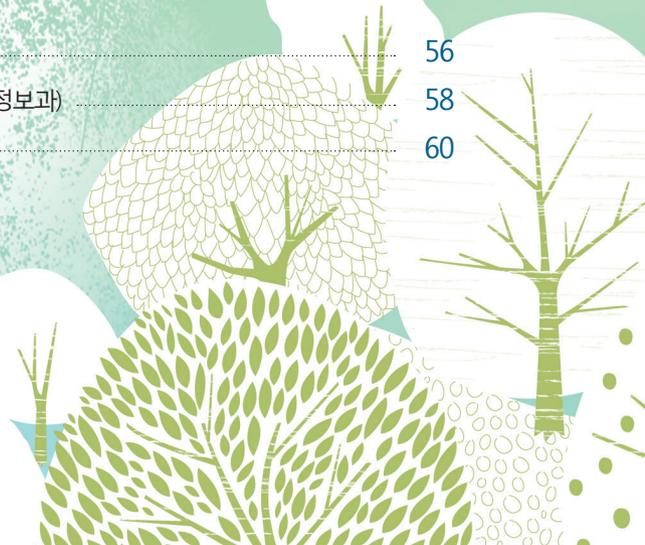
Contents

발간사	04
특별기고	안읽어 씨도 읽어 씨도 놀러 가는 도서관 · 김유(동화작가)	06
강연마당	그림책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구조 · 장세현(작가)	10
독서회 글마당	‘피구’ 등 · 모세준(한알독서회)	16
	‘건방진 장루이와 68일’을 읽고 · 천지훈(한알독서회)	17
	매 순간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짝들의 이야기 · 이희수(한알독서회 강사)	18
	‘토론 한마당’참여 소감 · 구연수 외(글밭독서회)	20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을 읽고 · 이혜경(영쿨독서회)	21
	‘바깥은 여름’을 읽고 · 박은숙(섬돌독서회)	23
	‘만약은 없다’를 읽고 · 홍경미(한마음독서회)	25

참여 글마당	지훈이의 일기·혜은이의 일기 · 시지훈시혜은(2018년 책 읽는 가족)	28
	태근이의 일기 · 윤태근(2018년 책 읽는 가족)	29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 이석은(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	30
	내 삶의 활력소, 옹기종기 동아리 · 박옥란(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31
	찾아가는 비경쟁 독서토론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를 읽고 · 이가영(봉곡중학교 국어교사)	32
	길 위의 인문학 '동양고전강독, 고전으로 사람을 읽다'를 마치며 · 손은희(길 위의 인문학 강사)	34
	나무와 새의 인연 · 윤한나(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36
	중국어 재능기부 참관기 · 이윤상·최문석(창신고등학교 재능기부 학생)	39
	'상실'의 골목에 멈추어 서서 · 신은실(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자)	42
	다시 시작하는 나에게 · 한서진(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자)	44
	단시간 근로학생 및 사서 실습생 소감 글	46

참여 마당	유아자료실 '태교특강'참가자 소감 글	48
	'무술년 새해 복(福) 달기'응모 글	49
	'새 친구에게 권하는 책'응모 글	50
	'책은 추억을 싣고~'응모 글	51
	'찰칵! 북캉스를 즐겨라'응모 사진	52
	2018. 창원도서관 독서진흥행사	53

직원 글마당	창원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나 · 김홍해(문헌정보과)	56
	5년 만의 복직, 나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 박경은(문헌정보과)	58
	캠핑과 독서 · 황재현(평생학습과)	60



발간사

희망찬 기운으로 시작했던 2018년의 끝자락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부풀어 오르는 목련 꽃송이에 설레고 흩날리는 벚꽃 앞에 아련했던 봄,
유난히도 무덥고 뜨거웠던 여름,
기쁜 소식들로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가을을 지나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올 한해 도서관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돌이켜 보고
우리 도서관의 지난 30여 년의 역사와 추억에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서른한 번째 '해돋이'를 내어놓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에 노력했으며
평생학습을 통해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고

책 읽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여느 해와 다름없이 지역주민과 함께 숨 쉬고 성장·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서관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많은 분과
해돋이 발간을 위해 소중한 글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창원도서관장 김희곤

안읽어 씨도 읽어 씨도 놀러 가는 도서관



김 유 / 동화작가

내가 사는 곳은 바다와 산과 호수가 있는 관광도시라서 주말이면 시장도 음식점도 사람들로 붐빈다. 밥때가 되면 맛집이라고 소문난 음식점 앞에는 끝도 없이 줄을 선다. 음식을 맛보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한두 시간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은 음식이 든 상자나 봉지를 서너 개씩 들고 다닌다.

그때마다 나는 사람들이 책을 사기 위해 서점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고,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서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고, 책이 든 상자를 두 손 가득 들고 다니는 것을 상상한다.

책도 음식처럼 서로 맛보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미있는 책을 찾기 위해 차가 막혀도 달려가고,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먹방에 쿡방까지 요리 프로그램이 넘쳐나듯 책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도 책 읽기를 즐기면 좋으련만. 그저 내 상상 속 이야기일 뿐이다.

차고 나면 새 책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책이 많다. 동네마다 도서관이며 서점이 들어서고 있다.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하루가 채 안 걸려 책이 배달된다. 그런 세상이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

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책을 읽는 사람은 눈을 찢고 찾아봐야 할 정도로 드물다.

책을 선물하는 경우는 어떤가. 어린이날 조카에게 책을 선물했을 때 울상이 된 조카의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 어린 조카는 게임기나 용돈을 기대했을 텐데 흔해 빠진, 아니 있어도 잘 읽지 않는 책을 받았으니 그건 선물이라기보다 골칫덩이냐 다름없었을 것이다.

나는 책에 대한 상상을 하다 동화책 《안읽어 씨 가족과 책 요리점》을 썼다. 제목에서 쉽게 알 수 있듯 책을 안 읽는 가족이 등장한다. 아빠 안읽어 씨는 무거운 책을 운동기구로 쓰고, 엄마 산만해 여사는 알록달록 표지가 예쁜 책을 가방으로 쓰고, 딸 안봄은 책들을 쌓아 인형 집을 만든다. 나이가 열 살이라 사람 나이로 치면 육십쯤 됐으니 이 집에서 가장 어른인 개 왈왈 씨는 책을 밥그릇으로 쓴다. 안읽어 씨 가족은 책을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 사기도 하고 가까이 두기도 한다. 그러니 책을 사지도 않고 가까이 두지도 않으려는 사람들보다 조금 희망이 있다.

안읽어 씨 가족은 휴가를 맞아 책 마을에 가게 된다. 책 마을에는 다양한 책 요리점들이 있다. 거대한 책 요리점, 맛없는 책 요리점을 지나 마침내 그들이 자리를 잡는 곳은 맛있는 책 요리점이다. 그곳에는 발효 종이를 층층이 쌓은 책, 무지갯빛 그림을 곁들인 책, 오븐에 구운 사진 책, 문장 사이에 꿀을 바른 책, 숫자 소스를 듬뿍 올린 책, 바삭하게 튀긴 글자 책, 낱말 새싹을 버무린 책이 있다. 책을 장식품이나 필요에 따라 쓰는 도구쯤으로 알던 안읽어 씨 가족은 그동안 맛보지 못한 책 맛에 빠져든다.

그렇다. 음식과 책, 먹는 것과 읽는 것은 다르지 않다. 깊은 맛이 나도록 정성을 다해 내놓은 음식, 새롭고 신선한 음식 같은 책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감동받을 것이다. ‘안읽어 씨’의 이름처럼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을 풍자하려고 쓴 동화지만 책을 안 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들 너무 고되고 바빠서 책을 읽을 여유가 없다. 텔레비전, 게임, 스마트폰과 같은 유혹 거리가 많다. 그것들은 빠르고 자극적이라서 당장 시선을 끌기는 하지만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

세상이 좀 느려지기를 바라며 나는 또다시 즐거운 상상을 한다. ‘빨리빨리’를 외치던 사람들이 ‘천천히’를 외치는 날이 온다면, 잠시 의자에 기대앉아 책을 맛볼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책을 읽다 베개 삼아 잠드는 날이 많지 않을까. 책에서 본 장면을 꿈속에서도 만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가고 먹방을 즐겨 보는 것처럼 책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책을 즐겨 읽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나 서점, 그리고 책을 내는 작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 / 별 / 기 / 고

안읽어 씨 가족이 책 맛에 빠질 수 있었던 건 맛있는 책 요리점 덕분이다. 처음 방문한 거대한 책 요리점은 길모습만 반지르르할 뿐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만하기 짝이 없는 곳이다. 그다음으로 들어간 맛있는 책 요리점에서는 매사에 시큰둥한 주인과 먼지 쌓인 지저분한 책만 있을 뿐이다. 누구도 펼쳐보지 않을 것 같은 책에서는 바퀴벌레까지 기어 나온다. 세 번째로 찾아간 맛있는 책 요리점은 누구든 환영한다는 팻말이 붙어 있다. 책 요리점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사람들은 다양하고 맛있는 책 요리를 마음껏 맛본다.

맛있는 책 요리점과 같은 도서관이 더 많아진다면 사람들도 책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행히 요즘은 도서관에서 이용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외형만 늘려 거대하게 만든 도서관이 아닌, 형식적으로 책만 쌓아 놓은 도서관이 아닌, 언제나 가고 싶은 도서관이면 그곳이 바로 맛있는 책 요리점이다.

새해에는 읽어 씨뿐 아니라 안읽어 씨도 도서관에서 놀 수 있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은 놀이터에 가듯 도서관을 찾고, 가족들은 외식하러 가듯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좋겠다. 누구든 도서관에서 책 맛에 빠져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



Changwon Public Library

창원도서관 **해돋이**

강연마당

그림책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구조 · 장세현(작가)

그림책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구조

장세현 / 「엉터리 집배원」 저자



* 삽화의 그림과 그림책의 그림

어린이 책은 대개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림이 삽화로 들어가는 것과 그림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삽화는 그야말로 글을 꾸며주기 위해 사이사이 끼워 넣는 그림입니다. 글만 읽으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림을 곁들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삽화는 글을 읽는 데 양념 노릇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재료는 아닌 거죠.

하지만 그림책은 다릅니다. 그림책의 그림은 그냥 양념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글과 함께 동일한 비중을 지닌 주재료에 해당합니다. 비유컨대, 어린이 책에서 글과 삽화가 주종관계라면 그림책의 그림은 부부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유명 화가의 뛰어난 작품이 원화로 들어갈 경우는 오히려 글이 부수적인 역할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때론 글자 없이 그림만으로 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림 속 설정이나 묘사로 스토리를 전개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삽화와 그림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림 속의 은유적 표현을 읽어내는 것은 그림책을 보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어떤 은유적 표현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반전의 스토리 구조

우리의 일상적인 어법 가운데 반어법이란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쁜 손자를 보고 ‘아이고, 요 미운 놈!’ 한 다든가, 일이 한심하게 돌아가는 꼴을 보고 ‘차암~ 잘하는 짓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책의 제목은 내용을 단적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러하듯(ex.정자, 헤미, 예나), 제목 또한 책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때론 제목 때문에 잘 나가는 책도 있습니다. <엉터리 집배원>이란 제목은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집배원이길래 엉터리라고 불렀을까?

이 책의 내용은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起) 대목에선 동네 집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30년째 집배원 노릇을 하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할멈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승(承) 대목에서는 할멈의 애잔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을 애타게 그리며 홀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쓸쓸한 삶의 유일한 위안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에는 그 카드마저 오지 않습니다.

전(轉) 대목에서는 역설적 상황이 일어납니다. 뒤늦게 도착한 카드를 받고 할멈은 몹시 기뻐하지만 그것을 끝으로 할멈은 저세상으로 떠납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은 할멈이 죽은 뒤에야 찾아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결(結) 대목에서는 마지막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멈이 받은 카드는 진짜 아들이 보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할멈의 사정을 잘 아는 집배원이 자기 딸에게 받은 카드와 선물을 아들이 보낸 척 그대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멈의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이 그 편지를 발견하고 집배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제까지 할멈을 위해서 엉터리 집배원 노릇을 했지만, 할멈이 돌아가시자 더 이상 엉터리 집배원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 그림 속에 어떤 장치가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전래동화 그림책

잠시 눈을 감고 이런 풍경을 한번 상상해볼까요?

어린 손자가 투정 어린 말투로 조릅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아이는 재미난 이야기에 배꼽을 잡기도 하고, 소름이 오싹 돋는 무서운 이야기에 몸을 바짝 움츠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스르르 졸음이 밀려오면 새근새근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감 어린 광경을 어느 집안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기 힘든 낯선 풍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면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무너져버린 까닭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시절의 유산인 옛이야기가 우리 곁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옛이야기는 기억 저편으로 아련히 멀어져가는 푸근한 고향의 풍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되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메마른 감성에 화롯불처럼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옛이야기에는 도덕적 교훈이나 가르침도 있지만, 그보다는 익살과 해학, 통쾌한 웃음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똥뎡장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필자가 어린 시절 들었던 수많은 옛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웠을뿐더러 또래 아이들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깔깔거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냇가에 똥을 누었는데, 그것을 빨래하던 할머니가 건져다가 된장을 끓였다는 줄거리입니다. 내용은 비록 단순하지만, 그 속에 더없이 큰 재미와 우스꽝스런 요소가 깃들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똥은 어린아이들에게 웃음을 터트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통음식 된장은 똥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구릿한 냄새뿐 아니라 질펀한 느낌이나 누러진 모양 등이 똥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말만 들어도 웃음이 절로 나는 똥과 친근한 우리의 전통음식 된장이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듣는 이들을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대목에 이르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폭발하게 됩니다. 맛있게 먹은 된장이 알고 보니 자기가 싼 똥이었다는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똥을 자기가 먹게 만드는 악의 없는 장난기가 엿보이지만, 바로 그러한 기발한 해학과 엉뚱한 상상력이 개구쟁이 아이들을 배꼽 빠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옛이야기는 대표적인 구비문학으로 본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산뜻한 그림이 곁들여져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맛깔스럽게 꾸몄습니다. 우리 민화의 표현 기법을 빌려와 산이나 나무, 호랑이, 토끼 등 사물의 형태를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가 옛이야기와 잘 어울리고, 어린아이들의 감성에도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색채도 밝고 화사하게 칠했기 때문에 경쾌한 느낌으로 책장을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눈썰미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눈치를 챘을 수도 있지만, 본래 이야기의 중심인 <똥된장> 외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곁가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림 속의 그림,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나 할까요?

다시 말해, 그림 속에 나오는 호랑이와 토끼는 그냥 그림을 장식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옛이야기의 분위기를 살려주기도 하면서 자기네끼리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장난꾸러기 토끼와 우직한 호랑이가 어떤 이야기를 엮어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도 책을 보는 재미를 높여줄 겁니다.

아울러 두 마리 토끼 중에는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 두 마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두 귀가 쫘긋 서 있고, 하나는 귀 한쪽이 늘어져 있습니다. 좀 더 빗긋고 개구쟁이 짓을 하는 녀석이 수컷일 테니, 아이와 함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그림책이 해맑은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고, 풍부한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Changwon Public Library

창원도서관 **해돋이**

독서회 글마당

‘피구’ 등 • 모세준(한알독서회)

‘건방진 장루이와 68일’을 읽고 • 천지훈(한알독서회)

매 순간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짝들의 이야기 • 이희수(한알독서회 강사)

‘토론 한마당’참여 소감 • 구연수 외(글밭독서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을 읽고 • 이해경(녕쿨독서회)

‘바깥은 여름’을 읽고 • 박은숙(섬돌독서회)

‘만약은 없다’를 읽고 • 홍경미(한마음독서회)

세준이의 일기와 독서록

모 세 준 / 한알독서회

<일기>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날씨 맑음

피구

팅팅 통통
피구 공을 던지자
주고받고 던지자

팅팅 통통 휘!
상대편을 맞히자
바람처럼 확확 던지자

"어어"
휘이익 어!
맞아 버리네

그럼 순서를 기다리면서
우리 팀에게 응원하자

<일기> 2018년 11월 11일 일요일 날씨 비움

축구

휘이익 통통
공을 힘껏 차자
차고 나면 하늘로
붕 뜨지

휘이익 텡텡 통통
끼이익! 꼴~
하하 호호

"으악!"
공 차다가 넘어졌네
휴~다리에 피가 안 나서 다행이네
조심하자 그리고 또 조심하자

<독서록> 2018년 11월 27일

엄마의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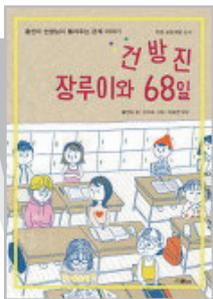
쓱쓱 쓱쓱
엄마의 초상화는 색깔이 화려하네
너무 예뻐서 시장에 팔아도 되겠네

쓱쓱 쓱쓱
엄마의 초상화는 봐도 봐도 보고 싶네
너무 예뻐서 박물관에 걸어도 되겠네

쓱쓱 쓱쓱
엄마의 초상화는 언제나 예쁘고 멋지네
너무 예뻐서 내 방에 걸어 놔야 겠네

‘건방진 장루이와 68일’을 읽고

천지훈 / 한알독서회



“건방진 장루이와 68일”은 내가 6학년이 된 후 초기에 독서 토론의 주제가 된 책이다. 작년과는 달리 다른 양식의 조금 더 심화한 토론정리 노트와 새로운 친구들과의 적응 시간이 필요했던 올해 초에 토론하였기 때문에 아직 친구들과 사뭇 어색할 때이기도 했고, 그때까지 선생님께서 독서 토론 리더를 맡아주실 때여서 나도 선생님의 주도 아래 내 의견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이 책에 대해 다루어보려 한다.

주인공 오윤기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반장 선거 하루 전에 전학을 온 장루이가 반장 후보로 윤기를 추천했다. 반장이 된 윤기는 평범한 일상이 깨지고 모든 것을 잘하는 장루이의 중간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장루이를 무시하고 남은 학교생활을 지내려는데 장루이와 계속되는 갈등과 오해로 둘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한 사건을 계기로 화해를 통해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작가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갈등이나 오해, 화해 등으로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책에 담은 것은 아닐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의미 있는 책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에 나는 이 책이 마음에 와닿았다. 가족과 같이 인생의 한 버팀목이 되는 친구들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상상이 잘 가지 않는다. 오윤기와 장루이는 서로 영원히 앙숙 관계가 될 뻔했지만, 화해를 통해 서로 친구가 되었다. 난 이 점이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친구와 싸워서 사이가 멀어졌을 때는 매우 슬픈 일이다. 전학을 통해 이 일을 직접 경험한 나도 초반에 서로 오해하고 싸울 때는 정말 안타까웠다. 하지만 화해를 통해 훈훈한 마무리를 지은 것을 보고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기도 하였다.

나와 또래 또는 형, 동생들도 혹시 친구 문제가 있다면 이 책을 통해 화해의 갈피를 잡는 것도 적극 추천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감명받으며 서로 오윤기와 장루이 같은 사이가 되었으면 바람을 가져본다. 벌써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한알 독서회와 이별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매 순간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짝들의 이야기

이희수 / 한알독서회 강사

3월 첫 만남을 가진 것이 엇그제 같습니다. 매년 한알독서회의 첫 만남은 부모님과 자녀가 짝이 되어 함께 하브루타 독서토론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처음 독서토론에 참여하는 귀여운 저학년부터 벌써 한알독서회 3년 차에 접어든 고학년까지 얼마나 반갑고, 설레는지요. 이 설렘은 이유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얼마나 성장할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브루타 독서토론의 ‘힘’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올해도 우리 학생들은 매 순간 저로 하여금 ‘와!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과 생각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알독서회의 하브루타 독서토론은 매 시간, 책을 읽어온 학생들의 질문이 독서토론의 중심이 됩니다. 자신의 질문과 짝의 질문이 만나, 생각을 키우고, 넓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양한 질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저학년부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쑤이 선생님의 안내로 진행됩니다. 고학년부는 모듈별로 학생들 스스로 토론 이쑤이가 되어 독서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이쑤이 역할을 하려면 귀 기울여 경청도 잘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기쁘게 해내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학년부, 고학년부 모두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학생들의 질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11월 <엄마의 초상화(유지연 지음, 이야기꽃 펴냄)> 그림책으로 하브루타 독서토론을 진행할 때입니다. 2, 3학년 친구들이 제시한 질문입니다.

1. 두 개의 그림은 왜 다를까?
2. 엄마를 왜 그릴까?
3. 왜 엄마는 회색 초상화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4. 내가 그린 초상화를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
5. 왜 모자로 성긴 마음을 감쌌을까?

6. 왜 빨간 립스틱은 빨간 열정일까?
7. 엄마는 왜 자기 딸이 그린 그림이 마음에 안들까?
8. 미영 씨는 빨간 열정을 좋아할까?
9. 내가 만약 그리는 사람이라면 엄마를 그릴까?
10. 미영 씨는 엄마가 젊었을 때의 모습일까?

딸이 그려준 너무도 사실적인 늙어버린 엄마, 미영 씨의 초상화, 집 밖에서는 전혀 다른 엄마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 그 두 가지 초상화를 통해 엄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2,3학년 학생들이 그림책 속의 초상화와 글에 대해 고민하는 질문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딸의 그림대로의 엄마가 아니라 꿈을 가진 미영 씨를 생각하며, 엄마가 좋아하는 것과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깊은 생각을 짧은 지면에 모두 나눌 수 없어 아쉽습니다. 토론 마무리에 한 학생이 남긴 메모를 짧게 전합니다.

빨간 열정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뜻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이 초상화를 그리는 거라면, 자기가 빨간 열정을 통해서 자기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려지십니까? 매 순간 독서와 질문을 통해 스스로 배움을 찾아가는 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곧 저의 성장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한알독서회 학생들은 스승이었으며, 독서토론 짝이었습니다.

한알독서회 학생들이 1년간 독서하고, 질문과 토론으로 성장하며 익힌 것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함께 읽기'의 행복한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9년에도 한알독서회로 만날 학생들을 여전히 설레며 기다립니다. 한 학생이 수만 개의 질문을 품고 저에게 올 거니까요. 그 질문을 상상할 수 없어서 더 행복합니다.

서로의 독서 짝꿍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할 2019년 한알독서회에서 만나요!

글밭독서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독서동아리 '토론 한마당' 참여 소감

열심히 준비하면서
디베이트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계속 찬성
만 해봐서 아쉬웠지만
잘 끝난 것 같아요.
- 윤소리 -

매달 독서회에서
토론하던 것과 다르게
더 많이 긴장됐지만
좋은 시간이었어요!
- 박상규 -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좋았어요.
- 박진오 -

2019년도 화이팅!
- 문성현, 박성용,
신현중, 이효진 -

긴장을 많이 해서
하고자 한 말을 다 하진
못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황혜빈 -

긴장되었는데 나름
즐거웠어요.
- 최수인 -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고,
반대 측의 의견도 발표해보고
싶었는데 찬성만 2번을 하게
되어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잘 말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 김희주 -

손이 떨리고, 차갑고,
혀는 내 맘대로 안되고 힘
들었지만, 이 경험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 구연수 -

준비하면서 즐거웠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잘 끝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 전수빈 -

ㅎㅎ 즐겁고
무서웠습니다
- 정새봄 -

의창팀과 창원팀이
서로 토론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 재밌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 김성규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을 읽고

이혜경 / 넝쿨독서회



이 책은 ‘지대넓얇’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기 팟캐스트 방송으로 시작해 책으로까지 탄생한 작품이다.

작가의 채사장이란 이름은 막 지은 이름이지만, 나중에 지식 가게의 사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또 체 게바라의 ‘체(체)’와 자본주의의 꽃인 부르주아 ‘사장’을 결합한 아이러니를 꾀했다. 작가는 대학 도서관에서 3년 동안 방대한 양의 독서에 심취하였고, 그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독서와 관심은 오늘날 지식 가게를 오픈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우선, 책이 읽기도 쉽고 재미도 있었다. 10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썼지만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도표, 그림, 재미있고 사실적인 예시, 그리고 중간중간 핵심정리까지. 흐름에 따라 읽다 보면 머리에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느낌을 주었다. 단순히 이론적 정의를 위한 책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작가의 의도가 읽혀졌다.

내용은 현실 편으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의 영역을 다루었고, 현실 너머 편으로는 지리, 철학, 과학, 예술, 신비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이 가고 다시 보게 만든 영역은 현실 편인 사회 영역이었다. 우리 사회에는 두 주체로서 개인과 집단이 있고 이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의 상황에 놓인다.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이기주의와 전체주의로 극단화될 수 있다. 근현대의 전체주의 폭력을 경험한 현대인은 개인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연권을 찾았다. 자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로 생명, 재산, 자유의 절대적 보호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하자는 개인의 주장일 뿐, 국가가 이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자연권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을 갖는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노동자가 소수의 자본가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 자본가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가 광고로 유지되는 태생적인 특성으로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계를

가진다. 대중은 정교하고 매끄러운 미디어의 영향 아래 놓이며, 자신의 신념과 사고의 번거로움을 포기하고, 모든 평가와 판단을 미디어에 양도한다. 바쁜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미디어가 대신해주는 것은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이렇게 미디어에 자신의 판단을 양도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밖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할 것이고, 인생의 깊이를 얻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과의 지적 대화 속에서 빛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미디어의 힘은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된 듯하다. 이런 문제를 인식은 하면서도 대다수의 대중은 미디어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같다.

책 제목만 보았을 때, 클릭만 하면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생각되었지만, 읽은 후에는, 저자의 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담겨져 있는 논리적인 인문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가의 논리에 대해서는 읽는 동안 공감과 반감이 같이 엮치락뒤치락했지만, 읽어 갈수록 흥미롭게 빠져들었다.

이 책은 “인생의 의미와 깊이는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비로소 빛난다.” 이 한 줄로 마무리되고 있다.



‘바깥은 여름’을 읽고

박은숙 / 섬돌독서회



언제부터인가 반복적이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 다들 나보다 더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힘들게 바쁘게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에 짜증과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기는 일상 속에서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추천한 책이 아니었고 갑작스레 변경된 책이라 또다시 다른 책을 읽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책을 읽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책을 펼쳤는데, 모든 상황과 경험들이 모두가 나인 것처럼 주인공이 되어 공감도 되고, 바쁜 내 일상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평범하게 대출받아서 집 사고, 집을 꾸미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장 행복한 엄마이자 아내 미진. 어린이집 하원 교통사고로 결혼 후 힘들게 낳은 영우를 잃은 부부의 일상이 엉망으로 변해간다. 싱그럽고 맑은 아이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옥죄이는 듯한 슬픔을 느끼는 ‘부부’라는 자리와 거대한 불행이 부모의 탓인 양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냉철한 ‘이웃’들의 시선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매 순간 아이의 흔적을 찾을 때마다 영우에게 못한 죄스러움과 애뜻함이 가득한 엄마의 마음에 너무나 마음 아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보통 1~2명의 자녀가 대부분일 것이다. 부모라는 삶의 대부분인 자식을 마음을 묻었을 때 어떠한 위로를 해야 할까? 정말 아무런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다.

찬성이는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와 생활한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어릴 적부터 철이 든 손자이다. 유일한 친구 ‘예반’이라는 강아지가 있다. 누군가 휴게소에 버린 유기견으로 병에 걸린 예반을 집에 데리고 와서 가족처럼 친구처럼 생활하면서 보살핀다. 부모처럼 예반을 책임지기 위해, 고통 없는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른스러운 마음과 또래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 하는 아이다운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공부가 우선이라 이런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현실에 짜증 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과 ‘내가 아닌 가족’들을 위한 마음이 먼저인 찬성이가 대견스럽고 기특하다.

도화와 이수는 고시원에서 공부하다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다. 도화는 경찰공무원에 합격하여 교통방송을 하는 직장인이며 이수는 시험에서 자꾸 낙방하며 연인 도화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면서 이별을 통보받게 된다.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청년 실업이라는 현실, 고시원에서 합격을 위해 입시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 자식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과 그 자식들의 합격만을 기원하면서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애뜻하게 느껴진다. 이수가 시험에 실패하면서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취업에 대한 불안감만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꼭 파이팅 하여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재이와 생활하는 엄마는 싱글 맘이면서 다문화가정으로서의 고민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나와 영양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학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요양병원으로의 이직, 열심히 생활하는 싱글 맘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재이가 경험하고 느끼는 지나친 차별과 부당한 시선들.

얼마 전 학교 옥상에서 친구들의 구타에 사망한 중학생이 생각난다. 피해자인 학생은 다문화 가정이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구타를 당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 내가 경험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나의 작은딸도 초등학교 때 되지도 않는 이유로 당시 유행인 카카오토티에서 친구들에게 왕따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때 딸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말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아무것도 해결 해주지 못해 가족 모두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다. 재이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해자인 애들의 견잡을 수 없는 행동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재이가 잘 이겨내어 학교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웃는 재이와 엄마를 응원한다.

나는 이 책에서 싱글 맘, 비정규직, 다문화 가족, 취업 문제, 집단 따돌림,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현실에 대한 책임감,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다양한 상황들과 경험들을 마주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내게 다가 온다면 스스로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나는 평소와 같이 출근, 퇴근 후 요양 병원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 뵙고 집 와서 엄마, 주부로 바쁜 생활을 한다.

오늘은 요양병원의 의사선생님께서 보호자들과 상담을 요청하셨다.

어머님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었다. 병원에 매일 가는 것이 짜증나고 힘들었지만 어머님의 상황을 설명 들으니 어머님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면서 반성도 하게 된다. 우리 곁에 오래 계실 것 같았는데 미리 병원에 모시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기는 하루였다. 요즘 노인문제와 음주로 인한 노인 구타 문제도 발생되는데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한번쯤은 꼭 가져야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은 없다’를 읽고

홍경미 / 한마음독서회



우연히 EBS 라디오 책 소개 방송에서 남궁인 작가를 만나고, 나는 올해 한마음독서회 토론발표 책으로 낙점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내 맘이 무거웠다. 죽음이라는 것, 날 것의 죽음이 있는 그곳에서 죽음 안에서 뛰어다니는 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고뇌에 공감했으며, 그 상황에 경악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죽음에 관해, 그리고 2부는 삶에 관해 쓰인 글들이다. 마치 두 권의 책을 읽듯 결을 달리하는 그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자 한 의사의 세계가 있었다. 긴박한 죽음과 마주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매 순간 ‘선택’에 직면하고, 수없이 많은 ‘만약’이 가슴을 옥죄다. 순간 다른 처치를 했다면, 감압이 성공했다면, 수술 방안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을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 온통 머릿속에 가득했다. 이 책은 작가가 하나의 생을 떠나보낸 후 돌아온 자리에서 마치 독백하듯 써 내려간 글들이다.

나는 ‘만약은 없다’를 읽고 발표하면서 토론주제를 세 가지로 생각해봤다.

1. 죽고자 하는 열망은 무엇일까?
2. 안락사에 대한 현실
3. 흉부외과의 현실

우리 한마음 회원들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해 많은 시간 경험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중학교 2학년 때 늦은 밤 뒷산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새벽에 내려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 아저씨의 물음에 얼버무리고 학교에 잘 갔던 이야기, 수면제를 사러갔는데 약사의 재치로 비타민을 수면제로 알고 들푹 사와서 먹고 그다음 날 너무 개운하게 잘 자고 일어나 삶의 충만한 기운을 느꼈던 이야기로 우리는 한바탕 폭소를 금치 못했다. 자살에 대한 열망은 크든 작든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나보다. 하지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수다 떨 사람이 있다면, 내 속을 누군가에게 비워낼 수 있다면, 죽고자 하는 열망이 조금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봤다.

우리나라는 안락사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다. 1997년 12월 4일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다친 김 모 씨를 부인이 퇴원시킨 ‘보라매 사건’에 대해 대법원판결을 통해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대해 의사를 살인 방조죄로 처벌한 이후 의사들은 언제든 연명치료의 중단이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방어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고통을 지켜보는 일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의 고리, 가족과 환자가 겪는 아픔과 의사가 처한 상황의 실상!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과 의사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선. 그 사이 어딘가에 개선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마무리하였다.

토론이 가장 생동감 넘치고 반성의 여지를 남겨준 것은 마지막 주제였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의 목숨은 어떤 일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은 이것이 위협받으면 분개하고, 그런 사실을 널리 알리려 한다. 하지만 한 해 1만 명이 외상환자를 다루는 ‘시스템’ 때문에 죽는다. 하지만 국민들이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혹은 외상 환자를 다루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시위를 하지는 않는다. 소위 ‘피안성정재영(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에 비해 흉부외과 의사의 수는 전멸에 가깝다. 귀갓길에 마주한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수술이 지연되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엔 왜 분노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모두 인정했다. 그래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는 남궁인 씨와 이국종 님을 존경한다. 이국종 님의 팬인 영란 씨가 이런 문제를 좀 더 고민하기 위해 내년 도서목록에 이국종 님의 에세이를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더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기로 하면서 마무리했다.

오랜만에 집에 갔을 때였다.

“제가 쓴 글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나는 우쭐해서 어머니께 잘된 글이라고 뿔아 건넸다. 반 무릎을 꿇고 묵묵히 글을 보시던 어머니는 별 대답이 없으셨다. 큰 반응이 없자 나는 몇 개를 더 뿔아 건넸다. 어머니는 그 자세 그대로 더 읽으셨다. 이튿날 어머니한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네가 건네준 글을 보는 순간 나는 아들을 사지로 밀어 넣었다는 죄책감 뿐이었다. 네가 하는 일이 힘들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런 일들 사이에서 네가 어찌 될까 두려웠다. 나는 몸이 떨려 간밤에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후기 중에서

나는 이 글을 읽는 내내 엄마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했다. 생각은 모두가 비슷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엄마이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참여 글마당

지훈이의 일기혜은이의 일기 • 시지훈시혜은(2018년 책 읽는 가족)
태근이의 일기 • 윤태근(2018년 책 읽는 가족)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 이석은(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
내 삶의 활력소, 옹기종기 동아리 • 박옥란(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찾아가는 비경쟁 독서토론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를 읽고 • 이가영(봉곡중학교 국어교사)
길 위의 인문학 '동양고전강독, 고전으로 사람을 읽다'를 마치며 • 손은희(길 위의 인문학 강사)
나무와 새의 인연 • 윤희나(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중국어 재능기부 참관기 • 이윤상최문석(창신고등학교 재능기부 학생)
'상실'의 골목에 멈추어 서서 • 신은실(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자)
다시 시작하는 나에게 • 한서진(경남독서한마당 수상자)
단시간 근로학생 및 사서 실습생 소감 글

지훈이의 일기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오늘 창원도서관에서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되어 창원도서관 관장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 보았다. 관장실에서는 도서관 관장님을 만났다. 관장님은 이 상과 현판은 가문의 영광이라 하셨다. 관장님은 상과 현판을 주시고 상품권도 주셨다.

2014년에 받을 때에는 동생 방에 붙였다. 하지만 2018년, 이번엔 현판을 내 방에 붙였다. 내 방의 영광 같다.

공교롭게도 ‘경남독서문화축제’랑 날짜가 겹쳐서 독서문화축제 구경 후 어린이 자료실에서 책을 읽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차 안에서 한국도서관협회장 도장이 찍힌 인증서를 보니 기분이 좋았다.

나는 이런 상을 받을 만큼 노력하지 않았는데 평소 도서관 캠프 참여와 연체를 많이 안한 것, 많은 도서관 방문이 도움이 된 것 같다.

나는 이 상을 받아 너무 기쁘고 도서관이 우리에게 상품권을 많이 주는 것 같다.

나중에 이 상품권으로 책을 살 것이다.

혜은이의 일기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우리 가족이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되어 창원도서관에 갔다.

창원도서관장님께 인증서와 현판을 받았다.

책을 매일 저녁에 읽으니, 매일 읽는 것이 일상이다.

현판을 받자 나는 너무 뿌듯했고 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2014년에 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8년에 또 받으니 뿌듯하고 나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다.

“혜은아, 고마워!” 또 같이 읽어준 아빠, 오빠, 엄마도 너무 고맙다.

하지만 현판 1개가 내방 방문에 붙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오빠 방문에 붙였다.

너무 아쉬웠다.

책도 많이 골고루 읽고, 행사도 참여하고, 연체도 안 해서 받은 것이니 정말 엄청 뿌듯했다.

독서야 사랑해!

태근이의 일기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오늘은 우리 반 친구들, 담임 선생님과 창원도서관에서 열리는 경남독서문화축제에 다녀왔다. 맛있는 먹거리도 먹고, 여러 도서관에서 마련한 부스를 다니면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니 좋은 경험이 되었다.

무엇보다 창원도서관은 내가 세 살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다닌 곳이라 나에게 아주 친근한 곳이기도하고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되어 오후에 수여식도 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축제를 즐겼다. 선생님께서도 자랑스러운 가족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친구들도 축하해줬다.

단지 책이 좋아서 자주 찾았던 도서관인데 우리 가족에게 좋은 상까지 주시니, 나의 책 사랑을 인정 받은 것 같기도 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오후가 되어, 우리 가족은 관장님을 뵙고 도서관 직원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수여식을 했다. '책 읽는 가족'이 인쇄된 현판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책을 지식만 주는 도구로 여기지 말고 평생 함께 갈 소중한 친구로 여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도서관에서 10년 동안 매주 시간 될 때마다 접했던 책을 통해 나도 많이 성장한 것 같다.

내 인생을 자신감 있고 즐겁게 해주는 책이 있어 고맙고, 나에게 책을 마음껏 읽게 해준 도서관도 참 고맙다.

다른 친구들도 이런 경험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뜻깊은 하루가 저물어간다. 늦가을의 바람도 상쾌해서 참 좋고 가족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하루였다.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이석은 /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를 졸업한 지도 까마득하다는 백발의 어르신이나 은퇴 후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중·장년 계층에게는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는 방과 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문화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게는 생활의 에너지를 고취하는 미술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을 찾아온다. 아마도 이러한 경험적 바탕이 사람의 일생에 필요한 사회문화교육과 평생학습의 명분을 만들어 주었을지도 모른다. 특히나 유아교육과 아동교육에 창작·표현 활동은 창의성과 감수성을 담아내는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융·복합 활동의 기본이 되고 있다.

창작·표현 활동은 쓸수록 발달하는 뇌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부딪치는 문제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창의력과 독창성, 판단력을 키우고 완성작을 통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책을 읽고 시각적 표현기법에 국한되어 ‘누가누가 잘 그리나’식의 관념적 대상표현을 넘어 다양한 독후 활동에 의한 감성적 생각과 창의적 접근 방식의 복합적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었으면 한다.

6~7세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 1~3학년의 저학년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면 한 마디로 깜짝 놀랄만한 창의력과 감수성을 표현한다. 단, 어른들의 간섭만 없다면. 부모라는, 지도교사라는 우월적 지도로 아동들의 창의적 표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다.

-세세한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기성세대는 표현 결과물에 대하여 성적(결과)순으로 비교하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정해진 결과로 몰아가기(완성하기) 등이 그것이다 -

지난 몇 학기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북적 북적 책놀이) 역시 교육목표와 개요는 ‘책을 읽고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다양한 재료로 표현 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지가 않다. 정해진 시간에 완성작을 요구하다 보면 지도교사는 목소리가 커지고,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내 아이의 결과물이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한 원망을 지도 교사에게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친구들의 창의적 표현과 사고력 증진을 위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내 삶의 활력소, 옹기종기 동아리

박옥란 / 평생학습 동아리 옹기종기 회원

어느새 십 년이 지났네.
2002년 3월 어느 봄날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생활도자기.

세월 흐름은 유수와 같다고 옛 선인들께서 말씀하셔서 익히 알고 있지만, 초급반을 거쳐서 동아리 반으로 승급하여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성심원(노인치매병원),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 우들과 짧게나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는 날이면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것이 무언가 했다는 보람도 생기고 삶의 활력소가 생겨 참 좋은 것 같다.

특히 도자기는 나이, 학벌, 성별 상관없이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 창원도서관에 등록하여 손쉽게 참여할 수 있기에 좋은 취미활동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도자기 수업 날은 작품도 만들고 변함없는 10년 지기 친구도 만나는 친교의 시간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다.

끝으로, 취미 활동은 요즘 유행하는 ‘힐링’이라는 건강과 정신이 부합되는 자아실현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에 적극 추천한다.

흙을 주무르고 모양을 만들어 작품이 완성될 때 느끼는 성취감이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 모자람이 없으니, 망설이고 계신 분은 용기 내어 보기를 권한다.

여러분의 동아리 활동을 환영합니다!



찾아가는 비경쟁 독서토론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를 읽고

이가영 / 봉곡중학교 국어교사



1. 비경쟁 독서토론을 선택한 이유

학생 개개인의 생각이 드러나고,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었다. 책과 삶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수업, 자신의 생각을 진중하게 표현하고 친구의 생각을 진심으로 고민하며 경청하는 수업을 꿈꿔왔다. “교과서나 선생님을 통해 배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비경쟁 독서토론을 통해 이것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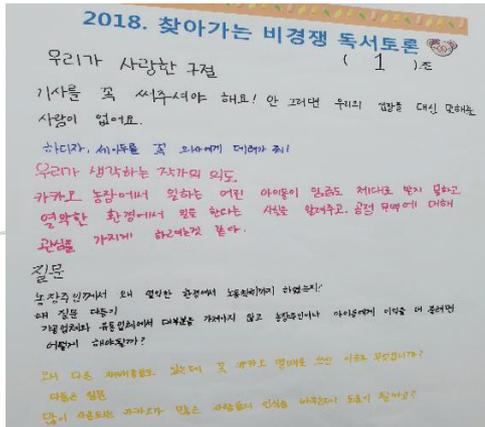
‘여럿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하고 공감했던 책 속 구절이 있어 인용한다.

“상대주의적 관점에 따라 서로 텍스트에 접근하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동일한 텍스트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한 자신의 경험, 사고, 가치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거나 공통의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중략)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보고, 나는 이래서 이렇게 보는구나 하며 각기 다른 주장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거치다 보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덜 적대적이게 됩니다. 이것은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중요한 훈련입니다.” - 교사 인문학, 김홍규, 세종서적,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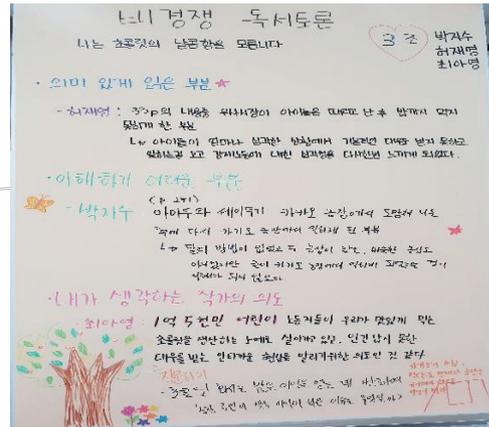
2. 질문과 경청이 있는 비경쟁 독서토론

경쟁 방식의 독서토론이 아닌, 비경쟁 독서토론을 한 후에 학생들의 표정은 아주 밝다. “오늘 독서토론 어땠어요?”라고 물으면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해서 좋아요.”, “다양한 생각을 들어서 재밌어요.”라고 말한다. 책을 읽고 나눈 대화가 학생들에게 자유로움, 편안함, 즐거움으로 기억된다는 것은, 국어교사로서는 정말 고맙고 벽찬 일이다.

10월 3일, 11월 17일에 창원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비경쟁 독서토론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교 중에 나는 구암중, 호계중 학생들과 독서토론을 하였다. 주제도서는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타라 설리번)’였는데 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꼼꼼히 읽어와 주었다.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비경쟁 독서토론. 당당한 독자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질문을 던지며, 다른 생각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신명 나게 지적 대화를 할 기회를, 나에게도 학생들이 빛나는 순간을 목격할 기회를 주신 창원도서관과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 구암중학교



▲ 호계중학교

길 위의 인문학 '동양고전강독, 고전으로 사람을 읽다'를 마치며

손은희 / 길 위의 인문학 토론 진행 강사

초여름, 무더위, 그리고 가을. 자그마치 6개월간의 긴 시간을 거쳐 길 위의 인문학 '동양고전강독'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계절의 변화를 두 번이나 아니 초겨울 추위까지 맛보았으니 세 번이나 느낄 정도의 긴 시간이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창원도서관을 향해 라디오를 들으며 김해에서 출발하여 40여 분 남짓, 길 위의 여행을 떠났다.

처음 동양고전 인문학 수업과 수업 후 주제 토론을 20주간 진행하기로 했을 때,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마음이었다. 왜냐하면 한 학기가 넘는 시간 동안 동양고전을 함께 읽으며 동양고전에 대해 일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긴 시간동안 여러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20주 동안 과연 몇 명이나 이 수업에 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20번의 수업도 20번의 토론도 모두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나의 첫 걱정은 괜한 걱정이 되어버리긴 했다.

수업의 첫 시간은 왜 우리가, 이 시대가 동양고전을 알고, 읽고, 배워야 하는가부터 시작되었다. 또 생각을 나누고 식견을 넓히기 위한 작업으로 매주 주제를 정해 비경쟁식으로 토론하고 삶을 나누는 일도 함께 진행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연령은 다양했다. 30대 새내기 엄마에서 40~50대 주부, 60대 은퇴 후 새 삶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어른까지 계셨다. 살아온 삶도 처한 상황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토론의 구성원도 5~6명씩 모둠을 정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배운 수업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삶에 적용하는 토론이 주를 이루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2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늘 시간이 부족했던 기억이 난다.

이 수업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매주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의 향연일 것이다. 유가와 도가, 법가와 묵가에 이르기까지 동양고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또한 한뭉거든 것이 있다면 진정성 있는 나눔과

토론을 했다는 것이다. 1시간의 짧은 강의는 안상헌 작가님의 명쾌한 강의로 늘 아쉬움의 연속이었고 다음시간을 고대하게 했다. 그래서였을까.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에도, 무더위로 지친 날에도, 태풍으로 바람이 심한 날에도 수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고 수업 참여자들도 자리를 거의 비우지 않았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은 갑론을박의 말싸움이 아닌 개인의 살아온 삶을 듣고, 고전을 현대에 적용하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멋진 프로젝트였다. 때로는 토론이 아닌 마음을 만져주는 힐링의 시간이 되어주기도 하고, 다른 이의 삶을 들여다보며 고전 속에 등장하는 공자와 맹자, 장자와 노자, 한비자를 만나는 조우의 시간이기도 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열띤 토론과 대화는 지금도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동양고전 강독, 고전으로 사람을 읽다” 프로그램은 40대인 나에게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50대와 60대를 미리 만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마치는 날에는 눈물로 다음을 기약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만들어주어 행운과도 같은 날들이 된 것 같다.

공자처럼, 맹자처럼, 때로는 노자처럼, 장자처럼 살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아니, 나에게 이 수업은 말한다. 지금까지 충실하게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정진하라고 말이다. 공자의 “극기복례(克己復禮) -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라.”는 말과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상선약수(上善若水) -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인다. 그렇게 흘러 바다로 간다. 더욱 커지는 삶이 물의 삶이다.” 라는 가르침은 나를 돌아보고 자아를 성찰하는 배움의 깊이를 깨닫게 한 중요한 말들이다. 누군가와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눈물도 아픔도 함께 나누며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오늘 배움을 다하고 물처럼 흘러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무와 새의 인연

윤한나 / 길 위의 인문학 참여자

‘조즉택목(鳥則擇木) 목기능택조(木豈能擇鳥)’란 말이 있다. 소설가 최명희의 ‘혼불’에 나오는 말이다. ‘새는 나무를 골라서 살지만, 나무는 자기에게로 와서 사는 새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는 그 선택할 기회조차 없어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지만 언젠가 그 품을 떠날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자신의 분신으로써 생명을 낳고 키워내는 사명을 지낸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긴 하지만 자연의 섭리로 볼 때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높은 나무 위, 부지런히 잔가지들을 물어와 등지를 틀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어미 새의 정성이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고 먼 나라에서 조국을 그리는 교민, 사랑하는 이를 한없이 기다리는 이들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인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눈 깜빡할 사이를 ‘찰나’라고 하고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시간을 ‘탄지’라고 한다. 숨 한 번 쉬는 시간은 ‘순식간’이라고 표현하는 데 비해 ‘겁’이란 헤아릴 수조차 없이 길고 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힌두교에서는 43억 2천만 년을 ‘한 겁’이라고 하여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옷깃을 스치고 2000겁의 세월이 지나면 하루 동안 동행할 기회가 생기며 무려 5000겁의 인연이 되어야 이웃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사람들은 이러한 엄청난 시간들이 쌓여 탄생된 소중한 존재들이다. 더구나 살과 피를 나눈 혈육뿐만 아니라 이웃으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새를 선택할 수 없는 나무들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사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을 피하고 싶어도 받아들이고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인지도.

친구 중에 말이 많아 통화를하면 꽤 긴 시간 수화기를 붙잡고 있는 이가 있다. 처음 한두 번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답을 하고 수궁을 해주었다. 그게 오래 알고 힘들 때 서로 도와준 벗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상대의 기분을 생각해서 빨리 끊자는 말도 못 하고 속으로만 끙끙거리다 오늘 기어이 직언하고 말았다. 수업을 끝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전화기에 그 친구의 이름이 떴다. ‘아, 또 오래 걸리겠구나.’ 말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말들이 이어지고 전화를 받은 지 한 시간이 다 되어갔다. 뒷정리도 해야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점점 기운은 없어지고 결국 한 마디가 입에서 불쑥 튀어 나갔다.

“넌 너무 말이 많아.”

친구도 곧장 인정하긴 했지만 그렇게 털어놓은 내 마음도 편안하지 않아서 곧바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주변에서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는 친구의 대답에 허탈한 웃음이. 그럼 이제는 내 심정도 알려나 싶으면 서도 너무 야박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함이 가시질 않는다. 그래도 서로를 어느 정도 알아서 다투거나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 친구에게는 내가 어마어마한 ‘겁’을 지나 만난, 속을 풀 수 있는 이웃일 텐데 날아드는 새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쏘아버렸으니 좋은 나무는 못 되는 셈이다. 아직도 마음 수양이 이것 밖에 안 되는 것이겠지. 그래도 속에 담아둔 말을 하고 나니 조금 후련하기도 하다.

와세다 대학 명예교수이자 심리학자인 가토 다이조의 ‘나는 왜 눈치를 보는가’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심적 갈등이 있는 사람이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심적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길 바라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같은 사람이기에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종종 입에 담은 사람은 대부분 남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의 심적 고통을 무시하고 태연히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비극과는 애초부터 무관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말이 많은 편에 속하는 친구는 듣는 상대방인 나의 입장까지는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심적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심적 갈등이 있음에도 아닌 척, 모르는 척, 태연한 척 가만히 있었다면 상대는 나의 솔직한 마음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후, 내 말을 들은 친구는 내게 전화를 거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내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때는 용건만 짚막하게 말하고는 빨리 끊었다. 그동안 시간을 많이 빼앗아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솔직한 나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한 것이다. 물론 제각각의 개성을 가진 현대 사회인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남의 심정까지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자신으로 인해 상대가 심적 갈등상태에 놓여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홀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심적 갈등이 없는 솔직한 사람이 남의 마음을 이해한다. 실제로 그런 부모는 아이가 작은 일에 화내거나 슬퍼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 준다. 하지만 심적 갈등이 있는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하찮은 일’로 무시하려 한다.”

친구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말이 많다고 편잔을 둔 나 또한 그 당시 피곤하고 지쳐 다른 이의 마음까지 감당할 상황이 못 되었다. 또한 나의 심적 갈등이 그림자로 작동하여 상대방에게 그렇게 투사되었는지도. 다른 이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그들을 다 안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배워가고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번 씨앗이 떨어진 자리에서 뿌리가 썩어도 다리를 옮길 수 없는 나무와 날개 가진 새의 안타까운 인연’이 우리네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날아오는 새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리를 옮길 수 없으니 한 번 씨앗이 떨어진 그 곳이 곧 나의 자리임을 알고 어느 새든 정답게 대화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키워나가야겠다. 친구와의 통화가 다시 한 번 나의 부족한 성정을 일깨워주는 밤이다.

중국어 재능기부 참관기

이운상, 최문석 / 창신고등학교 '책과 함께하는 창의교실' 재능기부 학생

팔월 어느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매미울음이 가득하던 그 날, 나는 창원도서관으로 향했다. 잊지 못할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중국어 재능기부를 준비하게 되었고, 단 하루 초등학생들에게 격변하는 세상에서 중국어를 필요로 하는 움직임이 꿈틀대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중국어를 배우는 중국어 학도로서 세상에 중국어를 전파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중국어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중국어 재능기부를 하게 된 것이다. 아직 중국어에 대해 '니하오', '니치팔러마' 등의 기본 중의 기본 어휘밖에 모르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중국어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성조, 흔하게 쓰이고 실제 중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일상회화, 중국 여행 시 계산이나 주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와 수화, 아직 중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을 위해 노래로도 중국어를 배울 수 있게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단군조선이 역사했을 때부터 한민족의 역사를 함께해온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와도 같은 대륙의 기상을 품은 중국에 대한 문화를 설명해 주기로 했다. 추가로 중국의 전통의상이자 초등학생들의 로망인 '치파오'를 입어보는 체험도 준비했다.

이 재능기부를 위해 고등학생에게 있어 피와 같은 야자시간을 활용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준비를 했다.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콩트를 짜보는 등, 우리의 일일 학생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중국의 매력에 푸욱 빠질 수 있도록 하며, 21세기형 인재상에 걸맞은 중국어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매번 모여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며 회의를 하곤 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오고야 말았다.

매미가 땀땀 거리던 무더운 여름. 아침 일찍 창원도서관으로 가서 우리의 일일 학생들을 만날 준비를 했다. 발표용 PPT를 쳐서 깨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고, 체험용 치파오는 사이즈가 다 맞는지, 짝은 다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초등학생 앞이지만 긴장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완벽한 수업을 위해 리허설을 여러 번 했다. 그렇게 준비와 연습을 반복하던 중, 강의실로 우리의 일일 학생들이 찾아오

기 시작했다. 우리 일일강사 중 몇 명은 치파오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미리 착용하고 있었는데, 역시 창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치파오가 잘 어울려서 그런지 들어오는 학생들 마다 관심을 보이거나 입어보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주어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과 수다를 떠다고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그렇게 학생들이 다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수업 시작시간이 되고 출석부를 보니 참가한다던 학생들보다 적게 와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프로답게 적은 학생임에 실망하지 않고 우릴 보기 위해 참석한 고마운 학생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한 대망의 수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중국어라는 언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성조에 대해 가르쳤다. 중국어의 성조는 조금만 달라도 뜻이 달라지니, 가장 먼저 배워둬야만 뒤에 배울 일상어나 노래도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도 지금 간단하게 배울 수 있다. 중국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고 싶다면 창신고등학교로 찾아와 최문석을 찾아라. 훌륭한 중국어 선생님이다. 그렇게 중국어의 성조를 가르치고 난 뒤, 중국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쓰는 일상어에 대해 가르쳤다. 가르치기에 앞서 아는 일상어를 말해보라고 하니, 아니나 다를까 ‘니하오’와 ‘니치팔러마’정도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생들이 훗날 중국에 진출할 것을 대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들을 가르쳐 주었다. 간단한 인사말, 감사와 사과의 말 등 정말 흔하게 쓰고, 자주 쓰이는 일상어를 가르쳐주었다. 물론 그냥 가르쳐 주어도 괜찮았지만 학생들이 중국어에 재미를 붙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짤’이란 것을 찾아 PPT에 추가하였고, 상황에 맞는 신나는 상황극을 보여주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즐거워 해주어서 보람을 느꼈다.

그 다음으로는 손으로 표현하는 중국의 숫자표현을 가르쳐주었다. 처음에는 왜 배우냐고 궁금증을 느끼던데, 여행을 갔을 때 가격 흥정을 위해 쓰인다고 하니 잘 이해해주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중국에 나가 우리에게 배운 중국어 숫자표현으로 가격을 흥정하고 ‘오래전 창원도서관에 가서 중국어 숫자표현을 처음 배웠었지..... 그때 만난 형들은 참 친절하고 잘 가르쳐 주었었는데.....’라며 회상할 것을 생각하니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다음으로 누구나 다 아는 동요인 ‘머리 어깨 무릎 발’을 중국어로 가르쳐 주었다. 이때까지는 천천히 중국어를 배웠다면, 동요는 노래에 맞춰서 불러야 해서 학생들이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다. 나도 따라 하기 힘들었지만 나보다 어린아이들이 잘 따라 하는 것을 보고 오기가 생겨 온몸을 불살라 초등학생이 된 기분으로 따라했다. 조금 힘들어하기에 과자를 상품으로 걸었고, 열심히 배우는 모습에서 선생님의 입장이 어떤지 느끼게 되었다. 울동과 함께 노래로도 중국어를 배워보고, 중국 문화에 대한 퀴즈시간을 가졌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쉽게 배울 수 있게 퀴즈로 준비했는데, 퀴즈라는 경쟁심리 요인인지 모두다 활발히 참여해주었다. 그렇게 퀴즈까지 다 풀고 난 뒤, 마지막 차례인 치파오를 입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

는 우리가 치파오를 입었을 때, 이상하다고 말을 해서 입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너도나도 입어보려 해서 다행이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치파오를 입고 다함께 기념 촬영 하는 것을 끝으로 중국어 재능 기부는 끝이 났다.

이번 재능기부를 준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가르치기에 수업의 난이도도 생각해보고, 설명하는 방법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어의 간단한 부분만 가르치더라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이나 상황극도 같이 해가며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재능기부를 준비하면서, 초등학생 시절을 떠올렸던 것 같다. 그와 동시에 아직 부족했던 내 중국어 실력을 기초지만 재능기부를 준비하면서 복습 효과도 얻었다. 하지만 열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해버려, 자료를 간추리는데도 생각 외의 시간을 써버렸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자료를 완성해내고, 발표 연습이 남았는데 이걸 자료 준비보다 더 힘들었다. 자료의 수준도 초등학생에게 맞췄지만,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도 함께 초등학생에 맞춰야 하는데 처음에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발표를 해서 혼이 많이 났다. 그렇게 혼이 나면서 수준을 맞추고, 흥미를 유발할 재미있는 상황극도 곁들어가며 발표 준비를 해나갔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는 이제 발표해야 한다는 긴장감과 다 완성했다는 뿌듯함이 교차했다. 그렇게 재능기부 당일, 우리가 만났던 학생들은 다양했다. 지나치게 소심한 아이와 지나치게 활발한 아이가 함께 있으니 그들 한 명 한 명 대하지 못하는 게 아쉬웠다. 그래서 설명은 전체적으로 하고, 한명 한명씩 붙어서 추가로 가르쳐주는 방법을 취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다양한 학생들을 혼자서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생겨났다. 그렇게 발표를 진행하는데 의욕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발표에 유도할까를 고민하다가 퀴즈에 쓰려 했던 과자를 발표 중간중간에 써보니 확실히 참여도가 올라갔다. 대답도 잘하고, 잘 따라 하는 모습을 보니,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렇게 탈 많았던 재능기부를 끝내고 정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참여하려 했을 때, 사실 나 자신도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지 않는데 과연 학생들을 가르쳐도 될까. 혹시나 실수하거나 발표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렇기에 준비할 때는 집중하고 꼼꼼히 준비하며, 발표 때에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리허설을 계속했다. 그 결과, 만족스러운 재능기부가 되었고, 학생들 또한 재능기부를 통해 중국어에 관심과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가장 뛰어나고, 효과적인 학습법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다.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직접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실'의 골목에 멈추어 서서 '바깥은 여름'을 읽고



신은실 / 경남독서한마당 북에세이 일반부 창원도서관장상 수상자

‘하루하루가 작별의 날들’이라는 어느 소설의 제목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과 이별하며 살아가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오는 동안,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느라 잃은 것을 헤아려볼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많은 것을 잃었으나 그에 대한 자각조차 없이 지금에 이른 걸지도 모른다.

김애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을 읽으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외면하거나 놓쳤거나 혹은 잊고 있었던, 한 때는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누군가를,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열정적이던 순간은 지금도 생생한데 그 모든 것이 시들해지거나 끝이 난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또 다른 흐름에 휩쓸렸거나, 외면했거나 자연스러운, 혹은 의도적 노력에 의해 기억에서 삭제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시간은 지나간다. 지나가는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은 상실을 거둬간다. 손상된 것을 현실 세계에 되돌려 놓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엇을 품고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영원히 소환되지 않거나 끝없이 환원되거나, 가장 멀고도 가까운 정지된 기억이 될 수도 있다.

김애란 작가의 소설 ‘바깥은 여름’은 총 일곱 편의 ‘상실’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유와 예고도 없이 삶의 길목을 막아서는 이별과 맞닥뜨렸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상실 앞에서 다음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저앉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헤어짐을, 때로는 대상의 소멸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생명만큼, 그보다 더 소중했을 자식을 죽음 너머로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목도하게 된 찬성, 오래된 연인과 헤어짐을 선택한 도화, 소멸해가는 언어.

우리는 ‘상실’ 앞에서 제대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한 때 쿨한 것이 미덕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다. 쿨하다는 건 멋지다는 말로 어떤 것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사로운 것에 일희일비하는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를 비웃는 말이기도 했다. 잠시만 주저앉아도 돌아갈 자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쿨함을 몸에 익혀왔는지도 모른다. ‘생존’이 삶의 일 순위가 되어버린 지금 ‘상실’이란 단어는 사라져가는 말일지도 모른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하지 않아야 하는 ‘금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이 책은 진정한 상실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자 한다.

- 도화가 이별을 준비할 때면 두 사람 사이에 꼭 무슨 일이 생겼다. 중략.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늘도 헤어지지 못할 것이다. -‘건너편’ 중에서-

따지고 보면 헤어지기 좋은 날이 어디 있겠는가. 이별을 마음먹고도 뒤로 미루게 되는 건, 이별이 끝이 아니라 헤어진 후에도 상대방이 주저앉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까지 상대방을 기다려주기 위함이다. 상실은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전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는 오늘 태어났다. 그리고 곧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하루씩 산다.

- 그때만 해도 소년은 그 노래와 말들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거라곤 상상 못 했다. 그렇지만 그가 정말 예상 못한 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 있는 테이프’로 전시될 거란 사실이었다. -‘침묵의 미래’ 중에서-

‘소수언어박물관’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해 다양성을 상실해가는 사회의 모습과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전시품’이라는 ‘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전시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 언제든 인간이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되는, 인간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를 소재로 인간을 객체화함으로써 그 역설이 극에 달한다. 자신의 언어를 박탈당하고 상실해가는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 지를 작가는 묻고 또 묻는다. 인간의 개인적 애환을 다룬 나머지 글들과 달리 인간과 사회를 염려하는 작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일까, ‘침묵의 미래’는 읽을수록 뿌연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심장이 멎어버린다.

잠이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하루쯤 늦잠이라도 자고 일어나면 자느라 놓쳐버린 시간을 아쉬워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내 불안해지는 탓이었다. 마흔을 목전에 두고 유용함과 무용함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 일상과 잊지 못하고 언제나까지나 환원되는 기억들을 떠올렸다. 내가 나일 수 있게, 하루를 버틸 수 있게 지지해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나의 실적 같은 것이 아니었다. 날개가 꺾여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어미의 자궁 같은 품 안의 따스함이 있었다. 이름도 잊어버린 누군가가 잡아준 등근 손으로 전달되는 온기였다. 힘들 때마다 고리를 걸고 매달리기도 했던 기억이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애써 떠올리지 않아도 한 번 스며들면 잊히지 않는 감각이었다. 잠시 멈추어 서 있으니 지나갔지만 잃어버리지는 않은 소중한 기억들이 무수한 선으로 덮여 있다가 흩어지듯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저녁이면 스치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지나가는 중이란 걸 알면서도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여름을 빙빙 돌고 있는 기분이다. 아무래도 이번 여름은 내게 오래 머무를 생각인가 보다.

다시 시작하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를 읽고

한서진 / 경남독서한마당 북에세이 청소년부 창원도서관장상 수상자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라는 책 제목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었던 것 같다. 이 책 속에 나온 '무기력 코끼리'가 올라타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정말 내 일상을 훑쳐 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슷했다. 책을 읽으면서 몇 부분은 반항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작가님은 귀신같이 알아차려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해해 주셨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무기력 코끼리에 눌러 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지금 시작 해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주었다.

이 책 속에 나온 친구들의 얘기처럼 최근 무기력 코끼리에서 벗어난 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작년 중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여러 가지 낯선 환경이 큰 스트레스였다. 그렇게 무기력 코끼리가 다가오려다 2학년이 되자 내게 올라탔다. 항상 제대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학교 성적도 언제나 평균 이상을 받아오니까 별로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재수 없는 소리일지 몰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을 보고 질투가 났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뭐든 먼저 도전을 해봐!”라고 말씀해주셨다. 책 속에도 뭐든 도전을 해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다. 역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무기력 코끼리가 찾아왔거나 무기력 코끼리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특히 사춘기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10대에게 추천한다. '공부'에 관해 누구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시기에 무기력 코끼리와 싸우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모두가 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책에서 우리 뇌는 조금해질수록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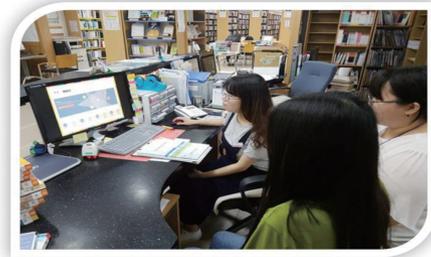
생각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한다. 한번쯤은 자신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씬을 선물해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번 여름방학이 나에게 주어진 ‘쉼’ 같다. 좋은 기회를 통해 2개의 캠프를 다녀왔는데 그 중 하나인 뉴질랜드 캠프는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도 가다듬고 목표를 세우니 어느새 무기력 코끼리가 내려와 있었다. 이제는 나의 새로운 친구가 된 것 같다. 무기력 코끼리가 내려온 지금 내가 스프링이라면 위로 날아오르고 있는 중이진 않을까하고 가끔 생각해본다. 하지만 스프링은 최고점으로 올려준 뒤 다시 올려주진 않기 때문에 그 뒤의 일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원고지를 쓰는 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나에게 쓰는 일기장 같다. 언젠가 또 코끼리의 무게가 느껴질 때면 이 글을 다시 읽어봐야겠다.



<단시간 근로학생>

- 야간에 종합자료실에서 근무하며 몰랐던 사서의 업무를 많이 알게 되고, 이론만 알았던 업무들을 실제로 보게 되니 신기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서 선생님의 노고도 알게 되었다. 책과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친해진 점 역시 뿌듯하고 좋았다. 항상 창원도서관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민지-
- 현장에 대한 업무나 경험들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김동훈-
- 사서 업무 실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고 싶다. -윤지원-
- 종합자료실에 근무하면서 좋아하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접할 수 있었고 선호하는 장르의 책을 넓혀서 좋았다. 무엇보다 사서직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정승민-
-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조천진-



<사서 실습생>

- 잘 짜여진 커리큘럼과 사서 선생님들의 섬세한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유익한 경험을 쌓게 해주신 저희 실습 담당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사서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이라진-
- 너무나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실습하게 되어 행복했다. -조부신-
- 실습을 하면서 누가 사서는 힘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지 힘쓰는 일이 꽤 있었다. 하지만 오래 하지 않았고 피곤을 느낄 만큼은 아니었다. 오류가 없을 듯 한 곳에서 오류가 나서 사서 선생님도 꽤 힘들었다. -최민규-
- 20일이라는 시간은 사서의 모든 업무를 알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이용자분들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학교에서 강의만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지식을 많이 얻었다. 직접 사서가 하는 업무의 일부분을 경험해보니 사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보통 사서 하면 데스크에 앉아서 대출·반납을 도와주는 사람, 책 정리를 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 사서가 하는 업무는 단순히 대출·반납, 책 정리가 아니라 도서관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사서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최지희-

Changwon Public Library

창원도서관 **해돋이**

참여마당

유아자료실 '태교특강'참가자 소감 글
'무술년 새해 복(福) 달기'응모 글
'새 친구에게 권하는 책'응모 글
'책은 추억을 심고~'응모 글
'찰칵! 복강스를 즐겨라'응모 사진
2018. 창원도서관 독서진흥행사

참/여/마/당



♡ 강의, 기념품, 간식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 강의 내용이 너무 유익했습니다. 태교에 좋은 그림책 소개 정도로 생각했는데 유아 독서에 대한 더욱 유익한 내용이었고 많은 팁을 얻어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오늘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네요~ 강의 내용, 준비해 주신 장소, 다과 그리고 태명 캘리 액자까지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신랑이 시간이 안 되어 같이 참석 못 한 게 조금 아쉽네요.

♡ 강의 내용과 다과, 캘리 액자 모두 좋았습니다. 택배로 대출서비스가 생겼다고 해서 신청하고 왔는데 그 목적과 의도가 너무 맘에 들었네요!!

♡ 내년에도 이런 강의를 있다면 주변의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꼭 추천할까 합니다~

♡ 잘 몰랐던 지식을 재미있게 잘 전달해 주셔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캘리 액자도 너무 예쁘고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기 그림책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골라야 하나 막막했는데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태명 액자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좌 횟수를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 태교특강인 만큼 태아를 위한 선물도 좋았고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다과 준비까지 많은 신경을 쓰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크게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 오늘 교육 너무 유익했어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육아 맘이나 예비 맘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상하반기 한 번씩 있다고 해서 아쉬웠어요.

참/여/마/당

무술년 새해 복(福) 달기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용자들의 소원 및 도서관 이용에 있어 각오나 다짐을 적어 응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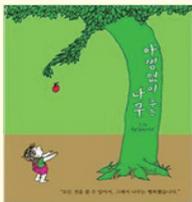
- ◎ 2018. 어느덧 아들을 낳은 지 햇수로 8년째 되는 해입니다. 돌쟁이 때부터 유아자료실을 들락거리며 책을 읽던 꼬마 아이가 어느덧 아동자료실의 책을 읽을 만큼 부쩍 자랐습니다. 몸의 크기뿐만 아니라 마음도 넓게 자라기를 바라며, 초등학교 될 아이의 올 한해를 응원합니다. -강희정-
- ◎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성적도 올리고 건강한 한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현준-
- ◎ 책 10권 읽기! 책 좀 읽자! -강성민-
- ◎ 올한 열심히 책을 읽고 다독 왕에 도전하자. -문미영-
- ◎ 제발 수능 대박 부산대 메카트로닉스 들어가자. 아자! -김상훈-
- ◎ 우유 남매! 올해는 병원 가지 말고 몸 튼튼! 건강해져라! -배수정-
- ◎ 아자아자! 책을 읽으면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웃는 날만 오길>♡< -김성화-
- ◎ 2018년 책을 통해 내면의 힘과 실력을 쌓고 도전하고 실천하며 가시적인 성취를 이뤄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수진-
- ◎ 바르고 책임감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ㅎㅎ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걸려있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정나영-
- ◎ 가족 건강하고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김미정-
- ◎ 현명한 엄마가 되기 위해 책을 많이 읽자. 우리 가족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김은옥-

참/여/마/당

새 친구에게 권하는 책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새 친구에게 권하고 싶은 도서를 추천하고 편지를 함께 작성하여 응모

지현아! 이 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네가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한 그루의 나무와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나무는 소년을 너무나 사랑했어.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열매와 나뭇가지, 즐거움을 모두 주었어. 하지만 나무는 행복했어.
 지현아! 나무는 엄마, 아빠와 닮은 것 같아.
 항상 우리가 잘 되기만 바라고 행복해지기만을 바라니까. 나무가 소년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낌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감사하자.
 지현아, 안녕~



추천하는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추천자: 최지예

민주야~ 내가 오늘 ‘무기 팔지 마세요’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이 책은 미국 장갑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효순, 미선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글이야. 책의 내용은 주인공 보미와 친구 민경이가 남자아이들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것과 어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야.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또래인 보미와 민경이가 전쟁 반대를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 내가 너에게 이 책을 추천할게. 정말 좋은 책이야. 너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추천하는 책: 무기 팔지 마세요!
 추천자: 박미성

4학년 2반 친구들에게
 안녕, 나는 현준이야!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할 책이 있어. 그 책의 제목은 ‘다 잘될 거야야’. 이 책은 ‘독일의 아마존 어린이’에서 최장기간 베스트셀러였어. 또 이 책은 라하프네 가족이 겪은 실제 이야기야. 그래서 책 내용이 좀 생생하지.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만약 내가 전투기 밑에 있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옛날 6.25 전쟁 때 피난 간 사람 도난 민이라는 말을 들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야. 그러니 난 민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자. “다 잘 될 거야.”라고.



추천하는 책: 다 잘될 거야
 추천자: 권현준

초이야~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너에게 추천하고 싶어.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 준영이야.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고, 아빠의 직업은 춤 선생이야. 춤 선생이라니 완전 독특한 직업이지? 이름이 뭔지 아니? 텔런트랑 이름이 같아. 바로 소지섭. 생김새는 텔런트랑 아무 상관 없이 생겼어. 아빠가 춤 선생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은 준영이에게 일어나는 많은 에피소드들이야. ‘아빠가 나타났다’는 그림이 너무 좋고,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좋았어. 너도 꼭 시간이 되면 읽어봐.



추천하는 책: 아빠가 나타났다
 추천자: 박동건

참/여/마/당

책은 추억을 싣고~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가까운 사람들과의 추억이 담긴 책과 그 추억을 적어 응모



상실의 시대

대학 1학년 여름방학, 진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여름방학을 시골집에서 보내려 내려온 시골 친구 들끼리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책도 바꿔 읽었다. 내게 '상실의 시대'를 권했던 그 녀석. 읽는 내내 이런 책을 왜 읽냐고 핀잔줬는데 그해 가을 녀석이 세상을 등졌다. 그 책이 그 녀석의 마음이었나 싶고 언제나 가슴 아리게 하는 책. 아직도 우리 집에 그 책이 꽂혀 있다. - 여영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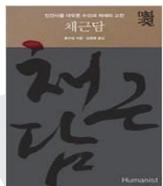
언어의 온도

고등학교 친구와 서점에서 각각 책을 한 권씩 사 서로 교환하였는데 그때 제가 받은 책이 '언어의 온도'였습니다. 힘든 학교생활 중 가볍고 삶에 교훈을 주는 '언어의 온도'는 읽는 내내 마음이 힐링 되는 느낌을 받아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 옥수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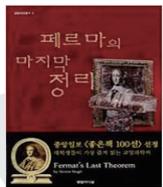
지금 만나러 갑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사서 선생님께 추천받은 소설책입니다. 그 이후로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였고 대학도 문헌정보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노영길 -



채근담

문고판 채근담 한 권을 두고 10대 후반 동생과 다툼 추억이 있습니다. 좋은 글귀에 예쁜 색연필로 줄을 그었다가 동생이 불같이 화를 내는 바람에 둘이 살벌하게 다투었지요. 결국 동생에게 새 책을 사주고 줄그어진 채근담은 30년 가까운 늘 꺼내 보는 저만의 소중한 책이 되었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찾게 되는 저만의 힐링 방법입니다. - 김윤정 -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폭 빠져들며 읽은 책을 그 누구에게도 쉬이 권하지 못하다 처음 만난 그 사람에게 추천해주었다. 일주일 후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며 책을 돌려주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공감대가 생기고 그 이후로 많은 책을 서로 권하며 좋은 관계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책을 우리보다 더 즐기는 딸과 행복한 도서관 나들이를 한다. - 승상희 -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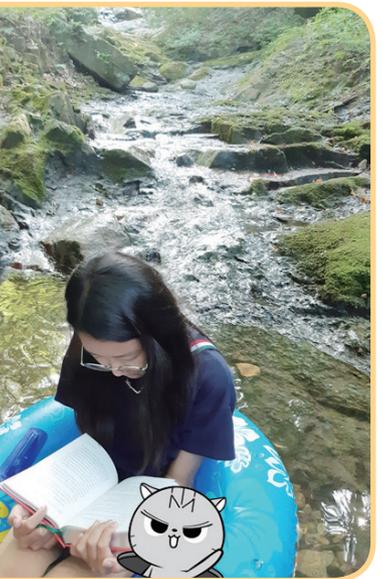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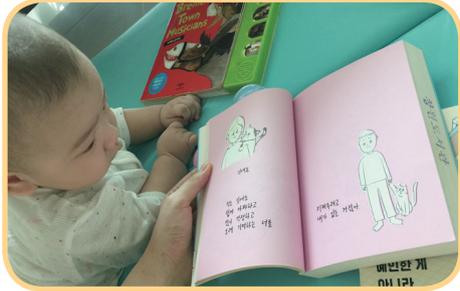
이 책은 제가 친구에게 선물을 줬던 책이에요. 어찌다가 줬냐면..... 친구가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책안에 글을 써서 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빼곡하게요. 그래서 다 읽게 되고 읽다가 울기도 했어요. 이 책은 그 친구와 저의 마음까지 울게 해 준 그런 따스한 추억이 담긴 책이에요.

- 강민지 -

참/여/마/당

찰칫! 북캉스를 즐겨라!

북캉스는 책(book)과 바캉스(vacance)의 결합어로 책과 함께 바캉스를 즐기는 모습을 찍어 응모



참/여/마/당

단계별 책 읽기

단계별 선정도서를 읽고 해당 독후활동을 완성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프로그램

- 운영기간: 2018년 2월 ~ 12월
- 운영대상: 5-7세 유아, 어린이, 청소년
- 운영내용: 독서 콩콩 계단 밟기(유아어린이),
청소년 독서프로젝트(청소년)
- 운영자료실: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명예의 전당(유아)



명예의 전당(어린이)

한 주제 한 책 읽기

지역주민들과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토론할 도서를 선정해 다양한 행사 진행

- 운영기간: 2018년 9월 ~ 11월
- 한 주제: 편견·불평등
- 한 책 선정도서
그 소문 들었어?(어린이)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청소년) 바깥은 여름(일반)
- 운영내용
[퀴즈] 골든 Book을 올려라
[토론1] 찾아가는 비경쟁 독서토론
[토론2] 한 책 북 토크
[체험] 도전! 한 책 퍼즐 그리기



골든 Book을 올려라



한 책 퍼즐그리기



찾아가는 비경쟁 독서토론

토요일엔 도서관 Day!

매주 토요일 강연, 공연, 교육, 독서체험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유도

- 운영기간: 2018년 1월 ~ 12월
- 운영대상: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 주민
- 운영내용
 - [첫 번째 토요일] 이용자 교육
 - [두 번째 토요일] 토요 책동산
 - [세 번째 토요일] (강연)토요 꿈Talk, 토요 인문학산책
 - [네 번째 토요일] 동화 인형극 공연



이용자 교육



토요 책동산



토요 인문학산책



동화 인형극

책 읽어주는 도서관

참여형 독서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습관 형성 및 독서 생활화

- 운영기간: 2018년 1월 ~ 12월
- 운영대상: 유아, 어린이
- 운영내용: 동화책 속 이야기 나라, 책 읽어주세요, 사서와 함께하는 그림책 교실, 책이랑 과학이랑, 책이랑 영어랑



동화책 속 이야기 나라



책 읽어주세요



사서와 함께하는 그림책 교실



책이랑 과학이랑

Changwon Public Library

창원도서관 **해돋이**

직업 글마당

창원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나 • 김홍해(문헌정보과)

5년 만의 복직, 나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 박경은(문헌정보과)

캠핑과 독서 • 황재현(평생학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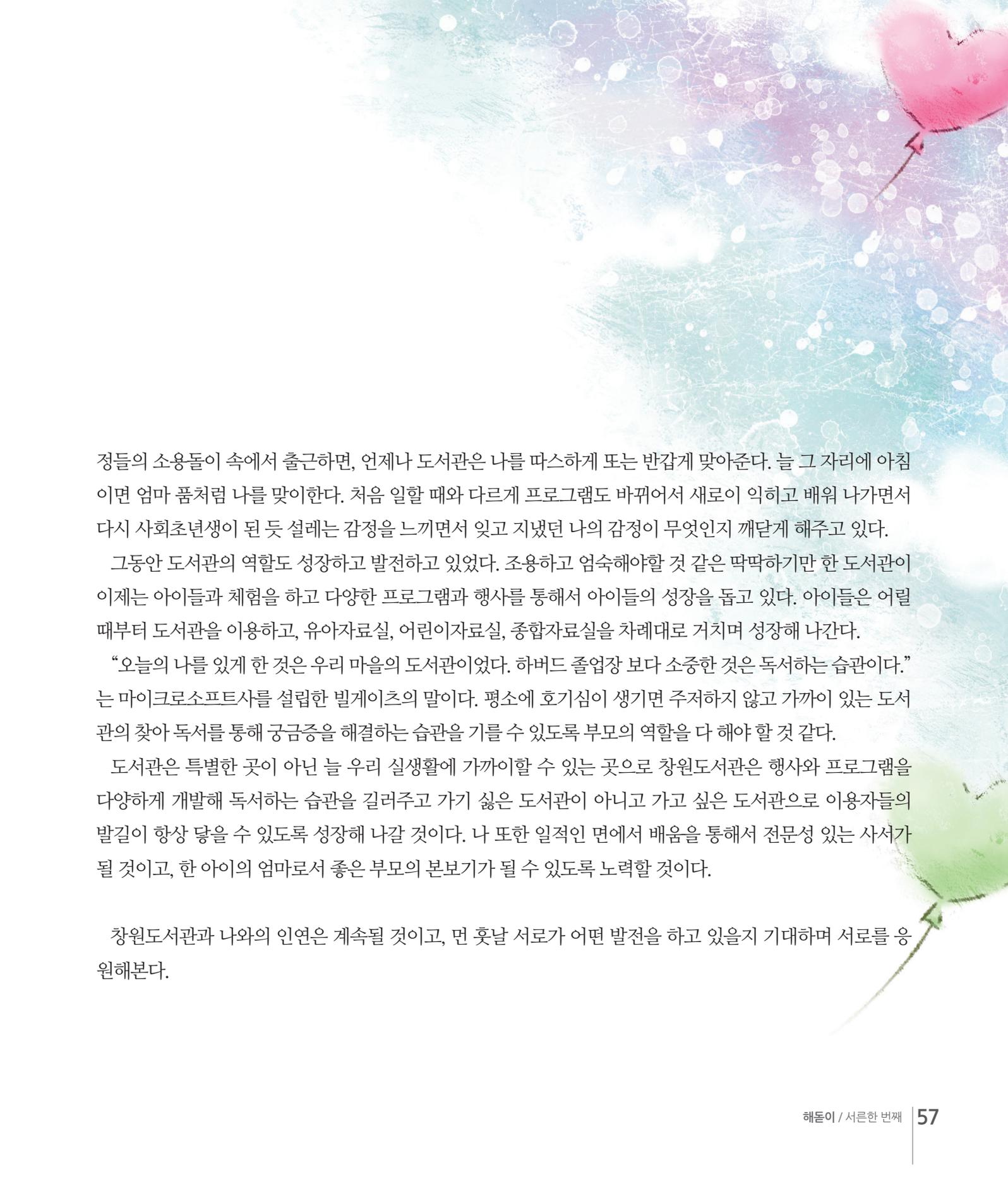
창원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나

김홍해 / 문헌정보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창원도서관이다. 30여 년이 넘게 창원도서관은 그 자리 그대로 본질을 지키면서 곳곳하게 이용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30여 년의 세월 속에 나와 창원도서관은 10여 년 넘게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보면서 미래를 함께 꿈꾸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

2004년 어느 봄날 창원도서관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벚꽃 길이 예쁜 창원도서관은 봄날의 따스함과 함께 나에게 다가왔다. 사회초년생인 나에게 첫 사회생활을 알려준 곳이다.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설레는 마음과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반반일 것이다. 서툴고 실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패기 하나 믿고 일을 시작한다. 막연하게 도서관에서 일하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또한 도서관에서 일하기 전에는 사서라는 직업이 아주 편한 직업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씩 배워 나갈 때 마다 도서관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식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다.

나는 20대를 벗어나 30대에 접어들면서 인생의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아가고 있다. 결혼 후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도 하게 되었다. 육아휴직 중에는 창원도서관을 잊고 지낼 만큼 아이 돌보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고 흔히들 겪는 산후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복직할 날을 기다리면서 창원도서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복직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들도 느끼고 아이의 감정이 곧 나 자신의 감정이 되어버렸다. 그 감



정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근하면, 언제나 도서관은 나를 따스하게 또는 반갑게 맞아준다. 늘 그 자리에 아침이면 엄마 품처럼 나를 맞이한다. 처음 일할 때와 다르게 프로그램도 바뀌어서 새로이 익히고 배워 나가면서 다시 사회초년생이 된 듯 설레는 감정을 느끼면서 잊고 지냈던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동안 도서관의 역할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엄숙해야 할 것 같은 딱딱하기만 한 도서관이 이제는 아이들과 체험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하고,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을 차례대로 거치며 성장해 나간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 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빌게이츠의 말이다. 평소에 호기심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도서관의 찾아 독서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 같다.

도서관은 특별한 곳이 아닌 늘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할 수 있는 곳으로 창원도서관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가기 싫은 도서관이 아니고 가고 싶은 도서관으로 이용자들의 발길이 항상 닿을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나 또한 일적인 면에서 배움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사서가 될 것이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좋은 부모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창원도서관과 나와서 인연은 계속될 것이고, 먼 훗날 서로가 어떤 발전을 하고 있을지 기대하며 서로를 응원해본다.

5년 만의 복직, 나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박경은 / 문헌정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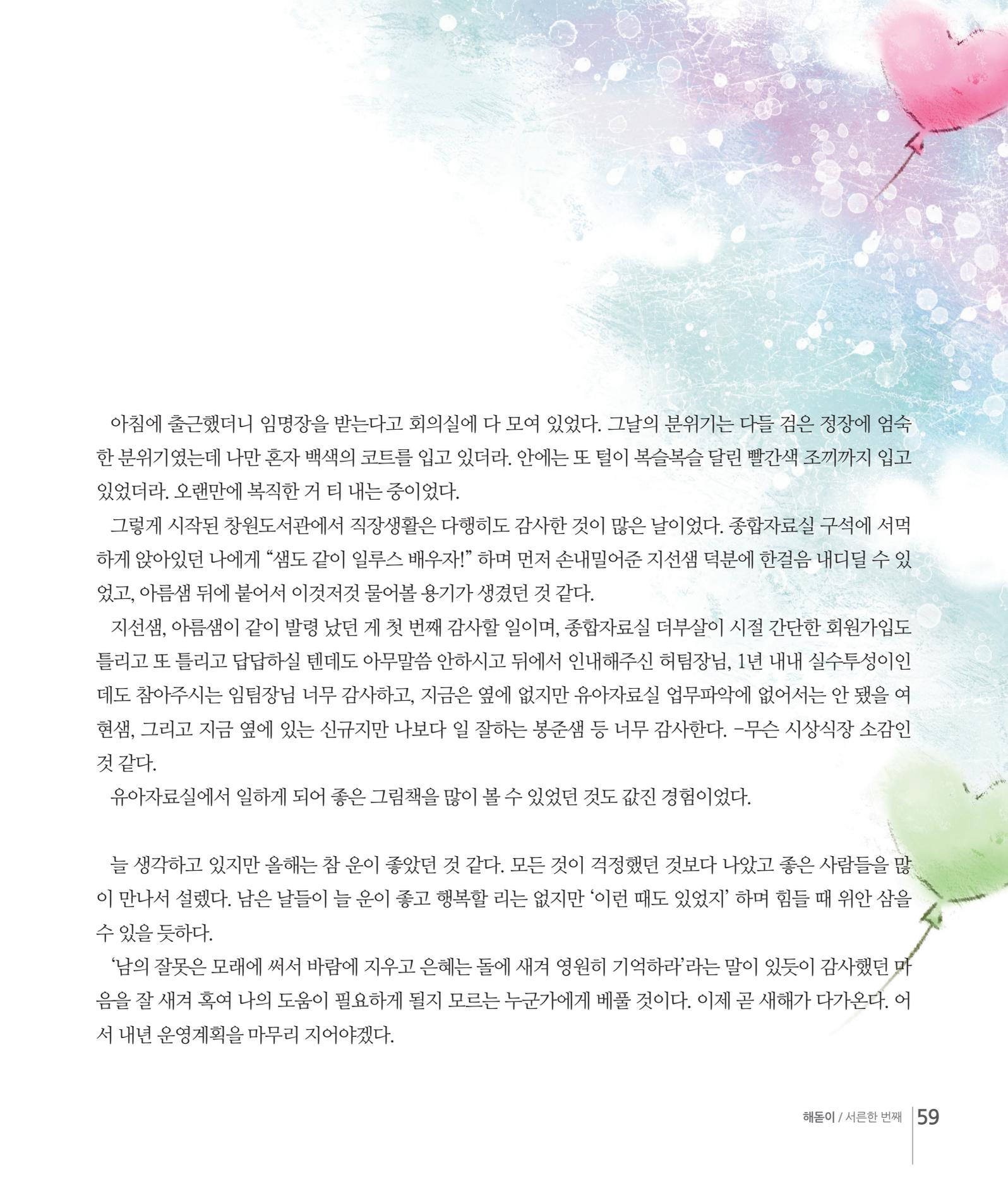
“층층이 시어머니에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겠네. 그래도 사직서는 내지 말고 6개월만 버티면 좀 살만해질 거야.”

2017년 5월이던가, 점집에서 들은 말이다.

5년 만의 복직이라 걱정이 한가득하였는데 거기에 돌덩이를 더 얹은 기분이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타인들은 지나가는 말로 힘들면 사직서 내면 되지 뭐 걱정이야 라고들 했지만, 일이 싫어져서 그만두는 것과 내가 적응 못 해서 그만두는 것이 어찌 똑같은까. 후자의 경우엔 낙오된 느낌이 들어 사는 동안 마음이 편치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내가 못해서 그만두는 일은 없었으면 했다.

그 불안이 오락가락 내 머릿속을 뒤집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11월이 되고, 그때부터 또 산청으로 발령이 날까봐 잠을 못 자는 날이 시작되었다.

김해에서 산청까지 가는데 2시간 잡고, 오가고 4시간인데 할 수 있을까? 온갖 잡생각에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아는 언니가 용하다는 점집이 있다고 같이 가보자 하여 지체 없이 따라갔더니 산청으로 갈 수밖에 없단다. 어떻게 하냐고 나를 잔뜩 위로해주었다. 우울한 마음을 다스리며 열심히 산청에서 집까지 자동차운전시간을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에서 열심히 검색하고 있을 무렵, 아침이었던가. 창원도서관으로 발령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산청으로 발령 안 나게 해달라고 온갖 신에게 빌어놓고는 막상 창원이라고 하니 또 눈앞이 깜깜했다. 산청에서 고작 10개월 일해 본 게 다인 내가 직속기관인 창원도서관에서 잘할 수 있을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다. 다시 5월에 봤던 점괘가 생각나면서 ‘그 집이 용한 집이었네.’ 혼자 단정 지으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2018년 1월 2일이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 임명장을 받는다고 회의실에 다 모여 있었다. 그날의 분위기는 다들 검은 정장에 엄숙한 분위기였는데 나만 혼자 백색의 코트를 입고 있더라. 안에는 또 털이 복슬복슬 달린 빨간색 조끼까지 입고 있었더라. 오랜만에 복직한 거 티 내는 중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창원도서관에서 직장생활은 다행히도 감사한 것이 많은 날이었다. 종합자료실 구석에 서먹하게 앉아있던 나에게 “쌤도 같이 일루스 배우자!” 하며 먼저 손내밀어준 지선쌤 덕분에 한걸음 내디딜 수 있었고, 아름쌤 뒤에 붙어서 이것저것 물어볼 용기가 생겼던 것 같다.

지선쌤, 아름쌤이 같이 발령 났던 게 첫 번째 감사할 일이며, 종합자료실 더부살이 시절 간단한 회원가입도 틀리고 또 틀리고 답답하실 텐데도 아무말씀 안하시고 뒤에서 인내해주신 허팀장님, 1년 내내 실수투성이인데도 참아주시는 임팀장님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옆에 없지만 유아자료실 업무파악에 없어서는 안 됐을 여현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신규지만 나보다 일 잘하는 봉준쌤 등 너무 감사한다. -무슨 시상식장 소감인 것 같다.

유아자료실에서 일하게 되어 좋은 그림책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도 값진 경험이었다.

늘 생각하고 있지만 올해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모든 것이 걱정했던 것보다 나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설렘다. 남은 날들이 늘 운이 좋고 행복할 리는 없지만 ‘이런 때도 있었지’ 하며 힘들 때 위안 삼을 수 있을 듯하다.

‘남의 잘못은 모래에 써서 바람에 지우고 은혜는 돌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감사했던 따움을 잘 새겨 혹여 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베풀 것이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온다. 어서 내년 운영계획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캠핑과 독서

황재현 / 평생학습과

토요일 오전, 캠핑 장비를 챙기느라 분주하다. 우리 가족은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주말이나 휴일에 캠핑을 자주 간다. 캠핑하려면 많은 장비와 식재료를 준비해야 하고 그것들은 옮기는 것도 여간 힘이 드는 일이 아니다.

캠핑 장비와 식재료들을 차에 가득 싣고 캠핑장으로 달려간다.

도착해서 짐을 풀기 전에 자연으로 둘러싸인 캠핑장의 전경을 만끽하고 깨끗한 공기를 폐 속 깊숙이 흡입을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라기보다 거의 나 혼자서 하지만.

장비를 차에서 내려놓고 텐트를 치기 시작한다. 여기저기서 남정네들이 텐트를 친다고 망치질이 요란하다.

텐트가 거의 완성이 될 무렵 집사람은 식재료들을 세척 후 저녁밥을 짓기 시작한다. 거의 모든 텐트 속의 저녁 메뉴에는 삼겹살이 빠지지 않는다. 당연히 소주는 필수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집집마다 음악을 틀고, 모닥불을 지피면서 낭만을 만끽한다. 이때의 낭만이라면, 음주와 함께 하는 대화,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영양가 있는 낭만이 독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텐트 속 조명 아래나 모닥불 옆에서 읽는 책은 다른 곳에서 즐기는 독서와는 다른 맛이 난다. 이런 낭만을 즐기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강력하게 추천한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일찍 잠이 깨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작은 주전자에 물을 붓고 가스버너에 불을 지펴 커피 물을 끓인다. 시원한 바람을 코끝으로 느끼면 마시는 커피 또한 캠핑의 묘미 중 하나다.

아침 식사 후 모든 정리를 마치고 장비를 실어 집으로 갈 채비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연 속에서 느꼈던 독서의 감흥은 지워지지 않은 채, 귀가하는 나에게 푸근한 에너지가 되어 있다.



해돋이 2018년 제31집

인쇄일 : 2018년 12월 28일

발행일 : 2018년 12월 28일

발행 : 창원도서관 문헌정보과(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03)

(055)278-2832 <http://cwlib.gne.go.kr> <비매품>

Changwon Public Library